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최유경), 김성중, 이필레, 이승이, 김기백(배숙자), 김정연A(이선분), 김정자, 김종선(박영숙), 김진희, 김춘화, 박금엽, 박부웅(최귀남), 박영애, 박혜진, 백성원(안지영), 석애자, 신세균(유미란), 오동호(강소영), 유승용(강민주), 유현호, 윤정호(유옥자), 이명희, 이선미, 이창규(곽정순), 이태일(송백현), 이한철(박희영), 이형욱, 이희재, 임영자, 임정빈, 정경석(박지순), 정경순, 정기성(심순옥), 조옥자, 채만기(장은주), 채명엽, 채희춘(황영옥), 최기훈(정계숙), 최성환, 최정란, 최정희, 하세련(김기안), 현운건(이윤옥).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 이필레, 최유경, 김경엽, 김미희, 김준규, 김태수, 박금엽, 박지순, 박희영, 백성원(안지영), 손정아, 신세균, 심 찬, 이명희, 이창규(곽정순), 이태일, 이한철, 이형욱, 임영자, 정기성(심순옥), 정옥순, 최기훈(정계숙), 최성환, 최정란, 최정희, 하세련, 황영옥, 바울남전도회.

♣ **감사헌금**
 강영성(신화순), 김미경, 김병율(이영숙), 김정기, 김현숙, 박복래, 박부웅(최귀남), 박은숙, 윤승환(민옥희), 이명희, 이선미, 전영선, 최선미, 최정란, 최효자, 사라여전도회,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레, 김민성, 김수현,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래, 박은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명숙,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인숙,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김민혁, 무 명.

♣ **월정헌금**
 이옥남, 장복순.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22주 : 시편 21 - 43편			
주 일	시편 21 - 25편		
월요일	시편 26 - 28편	목요일	시편 35 - 37편
화요일	시편 29 - 31편	금요일	시편 38 - 40편
수요일	시편 32 - 34편	토요일	시편 41 - 43편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정호 배경철	윤준호 방석대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윤창식 방현욱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김성중, 이필레		
	교육전도사	이승이, 최유경		
찬 양 대	지 휘 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에덴 : 최원지	호 산 나 : 김한나 엔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 트	김안나 김혜진 고광훈 장명환 고승진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A X 국 :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흥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 력 교 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 력 단 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용정선교회		

2014. 5. 25. 주일 예배 설교

성도의 죄에 대한 태도

본문: 고린도후서 7장 8-11 설교 : 이진우 목사
 사도바울은 신령한 근심의 결과에 대하여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신령한 근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모든 죄에서 떠나 경건함으로 나갈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어제 그 두 번째 신령한 근심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분히 여기며, 스스로 벌을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1) 특별히 본문 11절에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죄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변증하며”(아포로기안)는 말로 “항변하다, 방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 “대답하다. 응답하다. 수긍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즉 과거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어썰게든 구실을 붙여 이리저리 도망치기만 하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책임을 통감하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행한 죄에 대하여 바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기 전의 우리 모습은 잘못인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나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십일 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대승을 거두었으나 아말렉의 왕 아카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갈멜에 이르러 자신을 위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며 스스로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일단 인정은 하지만 그 다음순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며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 주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그렇지 않았습디다.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체면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 바로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 또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자신이 죄 범한 사실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아야 합니다. “분하게 하며”(아가낙테시스)는 “대단히” 라는 말과 “슬퍼한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부정이나 불의에 대한 “의분”이며 “죄에 대한 분개”함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모든 죄의 “원인자”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개탄하며 분히 여김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모든 죄나 불의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전적인 책임을 남에게 돌렸던 사람도, 이제는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며 분히 여겨야 합니다. 비록 사탄에게 넘어가 범죄하게 되었더라도 바로 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깨닫고 개탄하며 원통히 여기고 의의 길, 온전케 할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님이 울 때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히 통곡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비겁한 자만심이 깨어지고 자신의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 그 거짓된 모습이 다 벗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비겁하고도 나약한 죄 성에 대한 분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분을 가지고 스스로 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이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 분히 여기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 더 나아가 스스로 벌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벌하게 한다.”(엑디케시스)는 “엑크”와 “디케시스”의 합성어인데 그 정확한 뜻은 “정의의 심판” 혹은 “의로운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Vengeance”인데 이 뜻은 “복수”, “원수를 갚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범죄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사정없이 벌하고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말씀가운데 가차 없이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서 먼저 처 복종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위에 세워 그 벌을 할당하게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지난 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범죄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시나 그 전에 분명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주간도 주님 앞에 더욱 경건히 서며 범죄한 모든 일에 대하여 깨끗하게 해결함 받아 풍족하게 채우시고 더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한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22

2014.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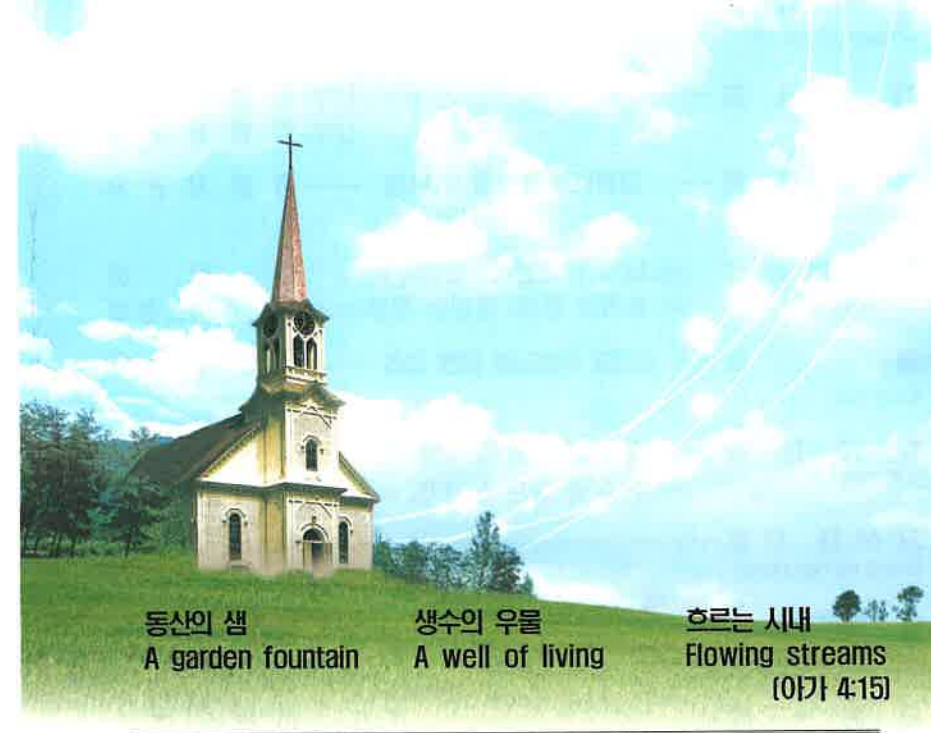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l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3 마길 18(개봉동)
- 18 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화: 김 병 을 장 로
(2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1부] 찬송가 302장 다 같 이
(Praise)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윤 영 준 집 사
(Prayer) (2부) 김 병 을 장 로

성 경 봉 독 고린도후서 7장 8-11절 유 은 자 권 사
(Scripture) (신약 P.293)

찬 양 대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 200장) 다 같 이
(Anthem) [2부]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안소망)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마음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1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2부] 주 달려 죽은 십자가(L. Mason) 셀 라 합 주 단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1부] 찬송가 488장 다 같 이
(Praise)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살아계신 주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찬양예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 주: 박지순 집사) 민 욱 희 집 사
설 교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30 재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유 처 부	주 일 오전 10:00 재교육관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9:30 유초등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0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템나무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소 랑 부 (경로대학)	토요일 오전 10:30 재교육관
전 도 팀 모 임	목요일 오후 2:00 재교육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소식

- ◎ 광고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오늘(6/1일) 오후 3시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1인당 3명 이상 초청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출연: 홀리 장로 합창단, 분당 챔버 오케스트라, 메조소프라노 이현승, 피아노 강민주.
 - [다락방기도회]
성령강림주일을 준비하는 다락방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 됩니다
주제: 성령의 담대함을 입자
일시: 6월 2일(월)~6일(금) 새벽 5시
 - [교구산상기도회]
일시: 6월 3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강화신덕기도원 회비: 10,000원
※권사기도회, 금요기도회는 교구산상기도회로 합니다.
 - [창립주일헌금 결과]
창립주일헌금은 134명어 5,514,000원 헌금하셨습니다.
 - [성령강림주일]
다음 주일(8일)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성령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 [아파트전도]
“아파트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 11시 교회식당에 모여 출발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여전도회는 주중, 남전도회는 주일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40일 연속 금식기도]
“40일 연속 금식기도”가 “성령의 담대함을 입자(사도행전 4장 31절)”라는 주제로 다음 주(성령강림주일)까지 계속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안내지 참고 (교역자 3명, 중직자 2명, 성도 1명이상)
 - [6월 행사]
6/ 1일(주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2일(월)~6일(금) 나락방기도회
3일(화) 교구산상기도회
8일(주일) 성령강림주일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여전도회 월례회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이승애 집사	이상학 집사	사랑2 고척4	최귀남 권사	사랑1~고척2 사랑2~개봉2	한 나
	*떡은 윤승한 성도, 민욱희 집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떡 결혼)					
다음주	김길자 사모	오현진 청년	권 사 회	이연숙 권사	권 사 회	드 보 라

◎ 교우소식

- * 윤금영 성도(소망2 고척8 목장) 5월 27일(화) 득녀
- * 오현진 청년(소망2 고척9, 오세균 성도, 이춘휘 집사 장남) · 서정원 청년 결혼
⇒ 6월 7일(토) 오후 5시, 아랫가모 잠실점(02-2144-0230)

순 서	1 부	2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 회	기 도	기 도
1주(1일)	윤영준 집사	김병을 장로	유은자 권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민욱희 집사
2주(8일)	박권제 집사	최기훈 장로	최효자 권사	전세력 장로	홍정훈 집사	박지순 집사
3주(15일)	최상걸 집사	윤정호 장로	안금자 권사	윤병호 장로	박부웅 집사	이강우 집사
4주(22일)	최성현 집사	배경철 장로	정계숙 권사	방석대 장로	이희순B 권사	이미영 집사
5주(29일)	김성욱 집사	임만순 장로	이경자 권사	강영성 장로	윤영준 집사	이옥남 집사
예배안내	윤정호 배경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